

항생제 사용후 악화된 당뇨병성 위장관 부전마비 (Diabetic Gastroparesis) 1 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창범*, 박용수, 김동선, 최용환, 안유현, 김태화

당뇨병성 위병증이란, 당뇨병 환자의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위장관 수축, 톤, 근육전기전도 등의 다양한 신경근육 계통 이상을 광범위하게 의미한다. 이 병변의 임상양상은 위운동 항진(tachygastria)에서부터 극단적인 위장관 운동 감소인, 위장관 부전마비(Diabetic gastroparesis) 까지 다양하다. 위장관 부전마비는 일시적인 고혈당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될수도 있으나, 대부분 그 증상이 서서히 발현된다. 그리고 항생제는 구토를 유발하는 약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주로 중추신경계 구토중추와 연관된다. 저자 등은 항생제 사용 후 악화된 당뇨병성 위장관 부전마비 1 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39세 남자가 내원 20일 전부터 시작된 오심과 발한, 오심을 주스로 입원하였다. 10년 병력의 당뇨병 있었고 최근 한달간 5 kg 의 체중감소가 있었다. 이학적 검사상 생체징후 정상, 만성 병색을 보였으며, 발바닥의 진동 감각의 소실이 있었다. 내원시 검사 결과는 WBC 13700/uL, Hb 11.1 g/dl, PLT 369000/uL, 공복혈당 283 mg/dl, HbA1c 12.7 % 이었다. 단순 뇨검사서 WBC many/HPF, Bacteria; many 소견 보였다. 입원 2일째 환자는 빈뇨와 38.4 °C 의 발열이 있어 요로감염 의심되어 Cefazedone sodium (Pazerone) 1 g 을 하루 3회씩 정맥주사 하였고, 추가로 Isepamicin sulfate (Isepacine) 200 mg 을 하루 2회씩 주사 하였다. 환자는 일일간 주사 후 심한 오심과 구토 호소하여 기존의 항생제 대신 Cyprofloracin (Cycin) 200 mg 을 하루 2회 주사로 교체한 후 증상의 호전보여 주사 유지했으나, 오심과 구토 서서히 악화되어 일주일간 투여 후 중단하였다. 항생제 치료 후 발열과 빈뇨 증상은 해결되었으나 오심과 구토는 하루 10 회 정도로 계속되었다. 단순 복부 촬영에서 장폐색은 없었고, 상부 내시경상 식도에 심한 선상의 미란이 있었으나 십이지장까지의 장 폐색은 없었다. 그밖의 구토를 유발할수 있는 신경과적 검사, 중이 검사, 류마티스 검사 상 이상 소견 없었다. 수화의 검사 지연 끝에 입원 48일째 시행한 99m-Tc 위배출시간 검사 (고형식) 에서 지연 시간 23.9분 (정상 21.3 ± 12.3 분), T1/2 > 120분 (정상 90.0 ± 23.9 분) 로 위배출의 지연 보였다. 치료로 metoclopramide, domperidone, cisapride, erythromycin 에 반응 없었으나, 엄격한 혈당 조절 후 증상 확실히 호전되었고, 현재 체중 10 kg 의 증가 보이며 외래 추적 검사 중이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요산 혈증과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하창영*, 강한욱, 정인경, 노정현, 이명식, 민용기, 이문규, 김광원

혈중요산은 관상동맥질환, 동맥경화증 등의 혈관질환과 대사증후군(인슐린저항성증후군)에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질환에서 혈중요산의 병리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질환에서 혈중요산의 증가가 하나의 독립된 위험인자인지 다른 위험인자들에 의한 종속 변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저자들은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본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한 제 2형 당뇨병 환자 548명(남자 342명, 여자 206명)을 대상으로 혈중요산치, 혈청지질,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비, 병력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혈중요산치와 대사증후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 전체 대상환자중 혈중요산치 7mg/dL이하는 남자 296명(86.5%), 여자 197명(95.6%) 이었다. 고요산혈증(>7mg/dL)은 남자 46명(13.5%), 여자 9명(4.4%)에서 관찰되었다. 혈중요산치 7mg/dL 이하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남자 53.52±11.10세, 여자 57.54±10.39세 였으며, 고요산혈증 환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 46.65±10.68세, 여자 50.14±17.79세로 고요산혈증이 있는 환자군의 연령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남자 p<0.01, 여자 p>0.05)

2) 혈중요산치 7mg/dL이하 남자 환자중 102명(37.8%), 여자 환자중 77명(41.4%)이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에 일치하였고, 고요산혈증 환자에서는 남자 25명(71.4%), 여자는 7명이 일치하였다.

3) 혈중요산치의 평균은 혈중요산치 7mg/dL이하 군에서는 남자환자중 대사증후군 아닌 환자 4.60±0.99mg/dL, 대사증후군 환자 4.95±0.95mg/dL였으며, 여자환자중 대사증후군 아닌 환자 3.89±1.09mg/dL, 대사증후군 환자 4.21±1.10mg/dL였다. 고요산혈증 남자 환자중 대사증후군 아닌 환자 8.51±1.91mg/dL, 대사증후군 환자 7.96 ± 0.93mg/dL였으며, 여자 대사증후군 환자는 8.05±1.27mg/dL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제 2형 당뇨병 환자중 고요산혈증(>7mg/dL)이 있는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이 더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혈중요산치 7mg/dL 이하의 환자에서도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혈중요산치가 더 높은 경향을 관찰하였다.